

# “고요함에 이르지 못하면 밝음도 볼 수 없다”



대허 스님은 계룡산 감사에서 해원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1965년 법어사 동산 스님께 보살계와 비구계 수지. 묘관음사에서 향곡 스님으로부터, 통도사 극락암에서 경봉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또 망월사에서 춘성 스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그 외 동화사 선원, 오대산 상원사, 문경 불암사, 선산 도리사 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하였다. 23년 전인 1984년 경주 남산 아래 보문선원을 지어 대중들에게 참선을 지도하고 있다.



대허 스님 (경주 보문선원 선원장)

**보**문선원으로 가는 길은 아름다웠다. 길가의 뱃나무들은 어느새 불그레한 빛을 띠고 있다. 저 멀리 남산이 보이고 거칠 것 없이 특 썩쳐진 들녘은 노란빛이다. 보문선원에 들어서자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있는 포대화상이 먼저 반겨 주었다. 대허 스님의 미소 또한 은화하여 사람을 편하게 해주었다. 대허 스님은 옛날에 불교를 꽃피웠던 경주가 좋아 23년 전에 이곳에 터를 잡았다. 보문선원 부근에는 신라 때 2000여명의 스님들이 살았던 '보문사'라는 절터가 남아 있다. 또 보문사 절터 가까이에는 진평왕의 무덤이 있는데, 진평왕은 2000명이나 되는 대중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불사를 하였다고 전한다. "세상은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은 못 속입니다. 좁은 자는 3년 동안 앉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공부하여 도를 이루었어. 그런데 나는 출가한지 50년이 넘었지만 이루어 놓은 것은 아무 것도 없으니, 이제 수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스승 만나는 것이 큰 복인데 일단은 인연(天의 스승인 부처님을 만났으니 큰 복이 있는 것이요, 젊었을 때 향곡 스님과 춘성 스님으로부터 배웠으니 복이 많은 것이지요."

스님은 속가와와 인연은 깊지 않았다. 초등학교를 다니던 13세에 가족을 하여 신문에 들었다. 계룡산 감사에서 머리를 깎고 사미계를 받았다고 하니 불가의 지중한 인연을 짐작할 수 있다.

"돈, 벼슬, 재주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3대 요소이지만, 절에서는 자비와 지혜가 제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심시(十施)가 있는데, 첫째는 법시(法施)라 하여 중생에게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둘째가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애보시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약을 지어주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는 것 등이 무애보시가 되겠지요. 물질로 하는 재시(財施), 밥을 해 준거나 청소를 해주는 등 몸으로 하는 신시(身施), 눈으로 미소를 지어 주는 안시(眼施), 얼굴 가득 웃음을 지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안시(顏施), 편안한 자리를 내어 주는 좌시(坐施), 방을 내 주는 방시(房施), 좋은 말을 해주어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인시(言施)가 있어요. 남에게 이득이 되고 깨우침의 길로 이끌어 주는 말은 살아있는 말이요, 남에게 불이익을 주고 마음을 해치는 말은 죽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마디를 해도 살아있

은 말, 기쁨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심시는 마음만 먹으면 실천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말은 화려하게 잘 하는데 실천행이 부족해요."

대허 스님은 선원 옆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직접 짓는다.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고 있다. 스님은 50년 넘게 수행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 수행자의 삶이라 생각하고 살아온 것이다.

"19세 때 고봉 스님의 49재를 위하여 서울로 심부름을 오게 되었지. 계룡산 촌놈이 서울에 왔으니 불거리가 얼마나 많았어. 그런데 파고다 공원의 원각사탑을 보니 어찌나 맘에 들던지 언젠가는 저 탑을 꼭 한 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그때 본 원각사탑을 잊을 수가 없어서 보문선원 마당에 세워놓

은 최고 진리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참선이란 열불이든 사경이든 자기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극진히 하면 됩니다. 많은 경전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얼마나 깊이 받아들여 실천하는가가 중요하지요. 도(道)란 거친 것이 삭아져서 고요함에 가닿는 것입니다. 고요함에 이르지 못하면 밝음도 보지 못합니다. 마음을 쉬고 쉬어서 더 쉬 수 없는 곳까지 다다랐을 때 공부라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부도담을 직접 만든 것에 대하여 질타도 하지만, 대허 스님은 당시 손으로 직접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스님은 자신의 부도담에 <금강경요해>에 나오는 계승 한 구절을 새겨놓았다.

"역전같이불고 공만세이장금(逆轉而不古 萬歲而長今), 천겁을 지나도 이것은 옛것이 아니요 만년을 지라도 이것은 그보다 더 긴 것이다." 이 구절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불생불멸의 세계를 뜻하는 것이다. 스님은 자신의 부도담을 보면서 좀 더 수행에 매진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날마다 새롭게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한단다.

대허 스님은 자신은 못난 것이 갖추어졌고 무식한 것이 갖추어졌고 키 작은 것을 갖추었다는 농을 하였다. 그렇지만 사람은 겉모습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 20여년을 향곡, 고봉, 효봉, 춘성 스님을 모시고 공부하였으니 그 수행의 깊이는 감히 짐작할 수 없다. 지금도 선방 수좌들은 경주에 오면 이곳 보문선원에서 묵어간다고 하니, 대허 스님의 수행담이 듣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닌가 싶다.

대허 스님은 <육조단경>의 한 구절을 붓글씨로 써 주었다. "자비심은 관음이고, 지혜심은 문수로다. 청정심은 석가요, 평상심은 미타로다."

마음속에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부처님 이 다 갖추어져 있음을 뜻하는 구절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잘 단속하는 것이 도에 이르는 길임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보문선원을 나와서 진평왕 무덤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황토길을 걸으면서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신라의 스님들도 걸었다고 생각하니, 내리는 발걸음마다 알 수 없는 그리움으로 가득 차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는설원원)

## 선원 옆 땅에서 농사 지으며 '자급자족' 실천 "가능한 일은 스스로 하는 것이 수행자의 삶"

있다고 하니 스님의 집념을 알 수 있다. 넓지 않은 마당에 원각사탑을 본 10층탑과 포대화상이 있다. 그 뒤쪽에는 머리 만든 대허 스님의 부도담이 있다. 대허 스님은 부처님을 모시고 살아온 자신의 삶을 이렇게 조각으로 표현하였다.

대허 스님은 22세 때 묘관음사에서 향곡 스님을 모시고 공부하였다. 강원을 다니지 않았던 스님은 아는 것이 별로 없어 궁극한 것도 많았다. 향곡 스님께 "600년 <금강반야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라고 청하였더니 이런 대답을 해 주시더라.

"다른 사람 소견은 모르겠지만, 나는 수보리의 '회유세존이여!' 이 한마디였어."

향곡 스님의 간단명료한 답변에 대허 스님은 깊은 환희심을 느꼈다고 한다. '회유세존이여' 라는 말은 '나는 당신에게 완전히 귀의하겠다'는 항복기심(降伏其心)을 드러낸 말이다.

대허 스님은 참선이 좋다 열불이 좋다고 말하지 않는다. "참선과 열불은 둘이 아니며 깊이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열불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항로

소 병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보문품) 크기: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 35 × 50cm (대) 42 × 65cm

움마니반 메추리자 60 × 20cm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전주 크기: 8mm×10mm×12mm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항로 (대) 26 × 16 × 16cm 155,000원 (소) 20 × 12 × 12cm 9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행복'을 마음속에 이루어 주며 일에서 힘이 생겨나고, 열매에도 사용한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74 송영화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금강약들 온열복대**

"암에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칙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들 온열복대

금강약들 온열복대를 사용하시면 80℃ 이상의 열과 생광광선이 발생되어 원칙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작용하고 편안하게 알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 불량, 만성위염, 생리통, 허리통증완화 허리디스크, 고관절, 어깨 결림등을 자연적 치유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속담보다 열이 높고 사용이 편리하며 고열의 원칙외선 "열침"이 신체 깊은 곳까지 도달하며 70℃~80℃ 이상의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원칙외선의 원리로 뜨겁거나 화상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랫배가 냉하신분 ◆손,발이차신분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허약한 氣회복 ◆생리통, 허리통증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 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현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이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강약들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온열침 의료기인증      전자파 환경인증

LIG배상보험 가입      실용심안출원 권

**썩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온열침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칙외선 "열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배, 허리, 발바닥 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의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안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73 정영 / 필요시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